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이윤희 사비나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시고 희생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한다.

준비물 : 성서, 초, 십자가, 꽃종이(선생님이 만든 것)나 메모지, 시침핀, 사인펜

신작기도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세요.

도입

한 주일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여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겨울이 돌아왔어요. 우리 추운 겨울 날씨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차갑게 얼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얼어 봐요.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 다들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도와 주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웃을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만들어 봐요. 어때요? 할 수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 보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전개 1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나요? (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사고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왜 돌아가셨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희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야기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수난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에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전개 2

선생님이 언젠가 고해성사를 보았을 때 이웃을 위해 희생 한 번 하라는 것을 보속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희생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여쭙어 보았지요. 신부님은 목숨을 걸고 하는 큰 일뿐 아니라 이웃을 도와 주고 봉사하는 일도 희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은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 할머니를 도와 드리는 희생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돕고 나누는 일로 희생할 수 있어요.

이야기 나누기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 예) 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②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줍기.
 ③ 집안 청소하기.
 ④ 준비물 안 가지고 온 친구랑 같이 나눠 쓰기.
 ⑤ 성당에 혼자 못 찾아오는 유치부 동생이랑 같이 성당 오기.

그래요, 희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는 일들이 모두 희생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관한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 봐요.

성서 읽기 : 마태오 27, 32-56

우리 모두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봐요. (시간이 부족하면 말씀만 읽고 묵상하세요.)

- ① 차분하게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불을 끄고 초를 켜다. 성서는 선생님이나 어린이 1~2명이 읽습니다.
- ② 성서를 읽고 나서 마음에 드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해서 세 번씩 소리 내서 읽고 왜 그 구절이나 단어를 선택했는지 발표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 ③ 자유롭게 발표합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잔잔한 음악을 틀어 주세요.)

위 성서 읽기와 연결해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작업하세요.

작업

십자가 안의 희생

준비물 : 십자가, 꽃종이 또는 메모지, 시침핀, 사인펜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가세요.)

십자가 만들기

아이들 인원수에 맞게 스티로폼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 십자가를 만든 후 갈색 한지로 쓴다.

꽃 만들기

색종이로 평면 꽃을 인원수에 맞게 만든다. 혹은 예쁜 메모지를 준비한다.

- ① 꽃종이를 나눠 주고 종이에 예수님이 희생하셨듯이 우리들도 이웃이나 가족,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② 꽃종이에 쓴 것을 한 사람씩 나와서 읽고 십자가에 봉헌한다.
- ③ 십자가가 다 채워지면 교리반 벽에 붙여 두고 다음 주에 와서 아이들과 잘 지켜졌는지 이야기 나눈다.



정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난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희생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매우 흐뭇해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부터 실천하도록 해요.

생활 적용

작업한 내용 실천하기.

다침 기도

우리를 언제나 보살피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때론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세요.

※관련 교리서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대구대교구 5학년 9과) / 예수님과 함께(가톨릭교리신학원 5학년 23과, 6학년 1과) / 은혜로운 만남(부산교구 5학년 18과)